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종단분석*

김 양 희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를 3차례에 걸친 종단 추적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하고 이들의 종단적 변화 추이 및 상호관련성을 자기 회귀교차지연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단 연구 첫 해의 참여자는 총 435명이며, 2차 년도는 378명, 3차 년도는 355명이 참여하였다. 분석결과 우수 여자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수준은 3년간에 걸쳐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 지연계수를 통하여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간의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차 년도의 진로장벽이 2차 년도의 진로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차 년도의 진로포부 수준은 3차 년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 우수 여자 청소년들의 진로상담에 차별적인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과 후속연구에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우수 여자청소년, 진로장벽, 진로포부, 종단분석

* 본 논문의 일부는 116회 미국심리학회 연차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120-750)

E-mail : skyoo@ewha.ac.kr, Tel : 02-3277-3911,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직업 세계 진출이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도 전통적인 직업관에서 보다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tz, 1993; Phillips & Imhoff,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실제적인 직업 선택은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고, 사회적 지위가 낮으며, 전통적인 여성 직업으로 편중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간호사의 91%, 유치원 교사의 98%가 여성으로 조력 전문직에 여성의 인력이 편중된 반면, 치과 의사의 22%, 의사의 32%만이 여성들로 나타나(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7) 수학과 과학의 능력을 요하는 직업에는 여성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간호사 98.7%, 유치원 교사 98.7%로 여성인력의 과도한 편중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치과 의사의 26.5%와 의사의 20.1%만이 여성들이므로 보고되고 있다(한국 노동부 통계 자료, Job map, 2005).

여성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남성들에 비해 포부수준이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은 우수한 여성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수한 능력의 여성들이 과학계통의 진로를 기피하거나(Ceci, Williams, & Barnett, 2009),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황매향, 김지현, 유정미, 2003).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직과 숙련직종에 여성 진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에서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27위에 머물 뿐 아니라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참여율이 59.1%에 머물

러 OECD 평균인 82.0%에 크게 못 미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실정이다(매경이코노미, 2007. 11. 21).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여성들의 전문직, 숙련직으로 실제 진출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여성들의 진로 발달 과정에 대한 심리적, 맥락적 이해를 요청한다. Gottfredson (1981)은 진로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타협 과정에 대한 논의를 최초로 이론화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 목표 중에서 자신에게 더 중요한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보다는 덜 중요한 요소들을 포기하는 타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진로포부란,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직업”(Gottfredson, 1981, p.548)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진로 포부는 개인의 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지적 요인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진로포부를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변인으로만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방법(O'Brien, 1992)과는 달리 진로선택에서의 사회 맥락적 변인을 고려하는 최근의 사회인지 진로이론 관점과 일치한다. 진로포부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비교적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나(Trice, 1991; Trice & King, 1981)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직업적인 포부를 제한시켜나가고 현실과 이상을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에게 적절한 직업적 포부를 구체화시켜 나간다(이정미, 2000). 제한-타협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민감해지고, 직업 선호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며, 정체감 형성, 타인에 대한 지각 증대와 함께 자신의 내적, 외적 요

인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증가한다.

청소년기에 들어오면서 증가하게 되는 자신의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 진로장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진로장벽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으로 “직업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손은령, 2002, p.77)로 정의된다. 이러한 진로 장벽의 개념은 진로 선택이나 결정의 과정에서 개인-심리 내적인 변인과 더불어 개인이 속한 사회적 제약이나 환경의 제약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인지 진로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진로장벽은 주로 여성들의 진로 선택과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주로 연구되어졌는데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다(김은영, 2002; 손은령, 2001; 손은령, 김계현, 2002;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Betz, 2005; Luzzo & Jenkins, 1996). 구체적으로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진로 포부를 낮추게 되며(Luzzo, Hutcheson, & Garrison, 1996), 자신감을 낮추고 진로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O’Learly, 197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장벽은 여성들이 더 높게 지각하며(Luzzo, 1995),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의 진로포부를 더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Learly, 1974). 그러나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진로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횡단 자료의 분석 결과들로 이 두 변인들 간의 인과적인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 진로 장벽에 대한 지각과 진로 포부 수준은

개인의 심리내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 맥락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개념들로서 개인의 심리내적 변화가 무쌍하고, 타인 및 사회의 기대에 대한 지각이 예민해지는 청소년기에 이 두 변인의 관계가 상호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중단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 실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진로포부와 진로장벽에 관한 남, 여 간의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예를 들면, Luzzo, 1995; O’Learly, 1974)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남, 여간 독립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Phillips와 Imhoff(1997)는 1986년과 1995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여성들은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하기 이전 인생의 초기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까?”, “여성으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하게 되며 이러한 내면적 과정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10여 년 간의 여성 진로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여성의 삶은 복잡하다”(Phillips & Imhoff, 1997, p.49)라고 하였고, 이러한 복잡성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경우에는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뚜렷한 진로지향성(career orientation)을 보이는 대신 다중역할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며(O’Brien & Fassinger, 1993), 가족에 관련된 갈등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Betz & Fitzgerald, 1987; Luzzo et al., 1996; O’Brien & Fassinger, 1993), 사회문화적인 영향도 다르게 지각한다는 보고가 있다(손은령, 2001). 이러한 면이 여성의 삶과 진로발달에서의 ‘복잡성’을 설명하며 동시에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의 진로를 연구

하는 데는 다양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다양한 방법과 시각으로 접근되고 연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성차에 대한 접근과 함께 우수한 여학생의 '우수성'의 측면은 일찍이 영재의 판별과 차별화된 교육을 주장하여 영재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Terman의 중단연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우수한 여학생들이 흥미나 활동의 측면에서 일반 여학생보다는 우수한 남학생들과 더 유사하며, 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 적응성이 높으며, 포부가 크고 높은 성취에 어울리는 욕구를 가졌다는 것을 밝혀냈다(Terman, 1925; Terman & Oden, 1935, 1947). 그런데 우수 여자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지닌 다재다능한 특성이 진로미결정이나 전공과 직업에 대한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drikson & Rothrey, 1972; Kaufmann, 1983; Kerr, 1985). 이에 대해 Kerr(1991)은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흥미, 욕구, 가치에 대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진다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강하게 느낄 것이고, 이렇게 강화된 정체성은 상담자의 촉진과 함께 학생이 더 의미 있는 진로목표를 결정하고 목표의 의미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시기는 또래와 같아지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며(Mitchell, 1979; Thornburg, 1980), 또래로부터의 수용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또래와 구별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McEwin & Cross, 1982),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우수하다는 재능이 평균적인 또래집단과 같아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신의 재능에 의해서 자

신이 제한을 받게 된다(Nelson, 1980).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수 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높은 포부수준과 욕구, 다재다능함, 주변의 높은 기대, 또래와의 차이에 대한 지각 등이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사회적인 기대와 충돌하면서 일종의 진로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포부를 형성하는데 제한을 가하게 되며 이러한 제한이 다시 진로장벽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가정해볼 수 있다. 우수여성의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Achter & Lubinski, 2005).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학업우수 여학생들과 일반 학생들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그동안 많이 연구 되지 않았던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의 복잡한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의 진로포부 수준과 진로장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또한 두 변인간의 상호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수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수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호 어떠한 인과관계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경기 지역 28개 중학교와 10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이 3년에 걸쳐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의 범위는 중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자이거나 학교 성적이 전교 석차 10등 이내의 여학생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특수목적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전교 석차 10등 이내의 여학생이다. 중단 연구 첫 해의 참여자는 총 435명이며, 2차 년도는 378명, 3차 년도는 355명으로 그 구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중단 추적 자료이므로 표본의 유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의 표본 선발기준과 동일한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표집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유실은 첫 해 참여대상자 435명 중 2차 년도에 94명이 유실되어 전년도 대비 78.4%의 표본 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로 37명을 표집 하였다. 3차 년도에는 2차 년도의 378명 중 71명이 유실되어 전년도 대비 81.2%의 표본 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로 48명을 표집하였다. 표본의 유실은 영재프로그램 참여대상자의 경우에는 성적 부진, 전학 등의 이유로 참여대상자가 변경되어 발생했으며,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전학, 이민 등의 사유로 추적조사가 불

가능하여 발생하였다. 이렇게 중단연구의 특성상 발생하는 연구대상의 유실과 보충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표집단계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재표집을 시도하였고, 통계적인 처리에서는 유실된 표본을 일방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남은 집단에 의도하지 않은 편향(bias)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수집된 최종분석 자료에서 각 표본이 하나 이상의 결측치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분석에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여 결측치 처리를 하였다. 연구 첫 해에 대상자들은 각각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이었으며, 연구의 최종 시점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측정 도구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

학업 우수 여자 청소년들이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진로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졌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발달에서 장벽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하위

표 1. 조사연도별 표본의 구성

	1차년도(중1, 고1)	2차년도(중2, 고2)	3차년도(중3, 고3)
	표본 수(%)	표본 수(%)	표본 수(%)
중학교	227(52.2)	195(51.6)	199(56.1)
고등학교	208(47.8)	183(48.4)	156(43.9)
합계	435	378	355

요인은 자기 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황매향 등, 2005). 황매향 등(2005)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67-.8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1차 년도에는 .63-.85, 2차 년도에는 .58-.88, 3차 년도에는 .62-.88이었다.

진로포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의 조작적 정의를 사회인지적 요인들을 통합시켜 설명한 Gottfredson의 이론을 따라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직업”(Gottfredson, 1981, p.548)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포부의 측정을 위해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을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라는 질문을 한 후, 유정이, 김지현, 황매향(2002)이 초등학생의 직업 희망 및 인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사용했던 79개의 직업 리스트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3개씩 선택하여 적거나 직업 리스트에 원하는 직업이 없을 경우에는 빈 칸에 직업의 이름을 직접 적도록 하였다. 유정이 등(2002)이 사용한 직업리스트는 Holland(1973)가 제안한 6개의 직업 유형 분류를 반영한 노동부(2002)의 직업심리검사 중에서 직업 흥미를 측정하기 위한 71문항의 직업리스트와 이 문항을 기초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79문항으로 완성한 직업목록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선택한 3개의 직업을 각각 노동부 직업지도의 학력순위와 임금 순위를 합산하여 지위 값으로 변환하

고 이를 역채점을 한 후 평균을 내어 진로포부 척도로 삼았다. 값의 범위는 1 - 300이며 값이 커질수록 진로포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직업의 지위 값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한 연구이므로 3차년에 걸쳐 매 1학기에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총 3차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실시 안내문과 함께 각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고 회수되었으며,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집단으로 설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3차년에 걸쳐 동일한 표본을 반복 측정하여 얻은 종단 추적 자료를 이용하여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M)을 실시하였다. ARCLM은 Bivariate Markov simplex model로도 불리며 종단 추적 자료를 이용하여 두 변인 간의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Curran & Bollen, 2001), 자기회귀모형 부분과 교차지연모형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 부분을 통해서는 동일한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교차지연 모형(Cross-lagged model) 부분에서는 각기 다른 두 변인 간의 시간의 지연을 둔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으며, 두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y_i[t] = \beta_0[t] + \beta_1 y_i[t-1] + \beta_2 z_i[t-1] + r_i[t],$$

$$z_i[t] = r_0[t] + r_1 z_i[t-1] + r_2 y_i[t-1] + e_i[t]$$

ARCLM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이 식에서 $y_i[t]$ 와 $z_i[t]$ 는 개인 i 의 $[t]$ 시점에서의 y 값과 z 값을 의미하며, $\beta_0[t]$ 와 $r_0[t]$ 는 각각 $[t]$ 시점에서의 절편의 값을 의미한다. $y_i[t-1]$ 과 $z_i[t-1]$ 은 $[t-1]$ 시점에서의 측정치이며, $r_i[t]$ 와 $e_i[t]$ 는 개개인 i 의 $[t]$ 시점에서의 잔여치를 의미한다. β_1 과 r_1 은 각각 동일한 변인의 자기회귀 계수이며, 이는 같은 변인의 $[t-1]$ 시점의 값으로부터 $[t]$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다. β_2 와 r_2 는 교차지연 계수이며, 한 변인의 $[t-1]$ 시점의 값으로부터 또 다른 변인의 $[t]$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본 연

구에서 검증한 ARCLM은 ‘모형의 검증과 추정 결과’ 부분의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진로장벽 1, 2, 3과 진로포부 1, 2, 3은 각각 변수의 측정시점인 1, 2, 3차년을 의미한다. $a_1, a_2, a_3, A, B, C, W, X, Y, Z$ 는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s)을 위해 사용된 것이며, 결과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ARCLM에서는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서로 내재된(nested) 경쟁모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간명하면서도 설명력이 있는 최종 모형을 선택하고, 이 모형에서의 자기회귀 계수와 교차지연 계수를 살펴봄으로써 관심을 가지는 두 변인의 시간에 따른 인과적 관계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모형비교에서 더 나은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χ^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는데, 본 연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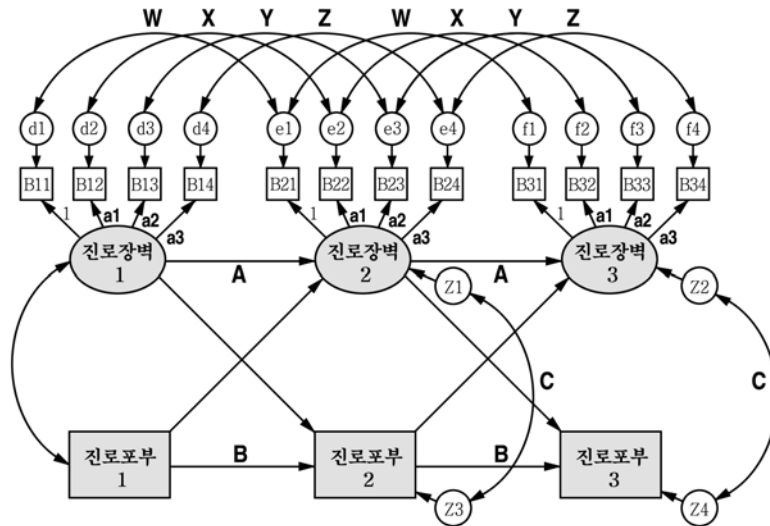


그림 1.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를 같이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모두 .95 값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Hu & Bentler, 1999),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대략적 기준으로 RMSEA < .05면 좋은 적합도, RMSEA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 < .10이면 보통 적합도,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중단 자료에서 발생하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 방법 중에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였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listwise나 pairwise와 같은 전통적인 결측치 처리 방법보다 더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으며(Arbuckle, 1996), FIML을 이용하면 중단 연구에서 결측치가 발생하더라도 분석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분석은 SPSS win 12.0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용 프로그램인 AMOS를 이용하였다.

결 과

모형 검증을 위한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고, 지각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진로포부 간의 상관분석표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검증과 추정 결과

ARCLM을 이용한 구조모형 검증은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간의 중단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고, 서로 내재된(nested) 8개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는 순서로 진행된다.

표 2.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요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M	SD	M	SD	M	SD
	자기이해의 부족	2.08	.67	2.15	.65	2.00	.67
	자신감 부족	1.87	.40	1.96	.42	1.91	.43
청소년용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1.38	.33	1.43	.37	1.43	.34
여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69	.39	1.76	.43	1.72	.43
진로장벽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1.93	.56	2.04	.55	2.00	.57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2.12	.61	2.22	.61	2.12	.63
	경제적 어려움	1.68	.46	1.74	.47	1.72	.49
진로포부	지위 값	257.32	35.15	259.01	34.87	261.03	32.23

주. 점수범위: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1-4), 진로포부(1-300)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장벽은 잠재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에서 측정오차의 양을 줄이기 위해 상관이 높은 하위요인끼리 짝을 지어 4개의 지표(indicator)로 변환하였는데, 이 방법은 지표로 사용되는 점수들을 신뢰롭게 하며 추정되는 모수치를 줄이므로 측정오차를 감소시키는 이점을 가진다(Bagozzi & Edward, 1998; Kishon & Widaman, 1994; 이아라, 2006에서 재인용). 단일 지표변수로 이루어진 진로포부는 잠재변수가 아닌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비교된 8개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재된 모형 간의 순차적인 비교는 전진법을 이용한 홍세희 등(2007)의 연구 방법을 참고로 하였다.

모형 1: 그림 1에서 오차 사이의 모든 공분산이 제외된 기본모형이다.

모형 2: 동일한 측정변수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변수 간에 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진로장벽 측정변수의 오차 간의 상관을 설정한 모형이다. 기본모형(모형 1)에서 d1과 e1, d2와 e2, d3와 e3, d4와 e4, e1과 f1, e2과 f2, e3과 f3, e4과 f4 사이의 공분산을 추가하였다.

모형 3: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각기 다른 두 변수 간에 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간의 상관을 설정한 모형이다. 내생변수의 경우에는 상관을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내생변수의 오차 간의 상관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z1와 z3, z2와 z4 사이의 공분산을 추가하였다.

모형 4: 중단연구에서 반복하여 측정하는 변수를 잠재변수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변수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across

time)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동일성이 성립하면 설문의 응답자들이 동일한 측정변수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같은 해석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a1, a2, a3는 각각의 변수에 대한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했음을 의미한다.

모형 5: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경우, 진로장벽의 자기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그림 1에서 A는 진로장벽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의미한다.

모형 6: 진로포부의 자기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그림 1에서 B는 진로포부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의미한다.

모형 7: z1와 z3, z2와 z4 사이의 공분산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그림 1에서 C는 공분산 사이의 동일화 제약을 의미한다.

모형 8: d1, e1과 f1, d2, e2와 f2, d3, e3와 f3, d4, e4와 f4 사이의 공분산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그림 1에서 W, X, Y, Z는 공분산 사이의 동일화 제약을 의미한다.

8개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 χ^2 차이 검증 결과와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간명성과 설명력을 동시에 가지는 모형 8을 최적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모형 1에 비해 모형 2는 자유도(df)값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설명력을 나타내는 χ^2 차이 검증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설명력을 획득하며, 간명성과 설명력을 동시에 고려한 적합도 지수 또한 좋아지므로 모형 2를 선택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순차적인 비교를 통해 모형 8이 최종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최종 모형인 모형 8의 적합도 지수는

표 3. 모형비교 결과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1	842.898	84	.657	.760	.131(.123-.140)
2	378.297	76	.849	.904	.087(.079-.096)
3	367.540	74	.849	.907	.087(.078-.096)
4	377.158	80	.859	.906	.084(.076-.093)
5	377.859	81	.861	.906	.084(.075-.092)
6	378.751	82	.862	.906	.083(.075-.092)
7	382.258	83	.863	.905	.083(.075-.092)
8	384.929	87	.870	.906	.081(.073-.089)

TLI = .870, CFI = .906, RMSEA = .081로 아주 좋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는 종단 자료를 분석하는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보통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각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한 최종 결과표는 표 3과 같다.

최종 모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형 4에서 진로장벽의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5와 모형 6에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자기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 또한 밝혀졌다. 이때, ARCLM을 통해 밝혀진 자기회귀계수의 안정성은 각 변인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집단 평균

의 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Curran, 2000; Curran et al., 1997).

최종 모형(모형 8)에서 구조계수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2와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는 편의상 자기회귀 계수와 교차지연 계수의 표준화된 추정치를 제시하였으며, 추정 결과 외생변수인 진로장벽 1과 진로포부 1의 상관성이 유의미하며, 자기회귀 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진로장벽 1이 진로장벽 2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 2가 진로장벽 3에 미치는 영향, 진로포부 1이 진로포부 2에 미치는 영향, 진로포부 2가 진로포부 3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차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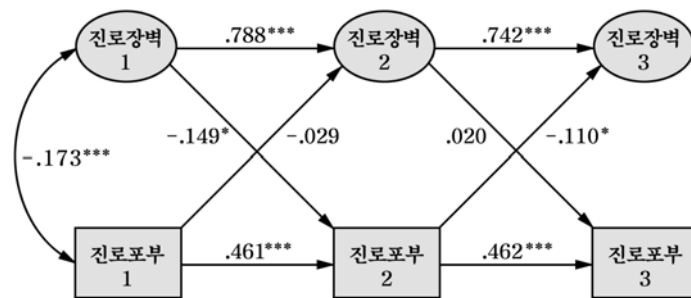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추정결과

표 4. 최종 모형(모형 8)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진로장벽1 ↔ 진로포부1	-2.367***	.716	-.173
진로장벽2 ← 진로장벽1	.800***	.031	.788
진로장벽3 ← 진로장벽2	.800***	.031	.742
진로포부2 ← 진로포부1	.446***	.034	.461
진로포부3 ← 진로포부2	.446***	.034	.462
진로포부2 ← 진로장벽1	-13.067*	4.365	-.149
진로포부3 ← 진로장벽2	1.704	4.617	.020
진로장벽2 ← 진로포부1	.000	.000	-.029
진로장벽3 ← 진로포부2	-.001*	.001	-.110

* $p < .05$, *** $p < .001$

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진로장벽 1이 진로포부 2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포부 2가 진로장벽 3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3년에 걸쳐 수집된 종단자료의 분석을 통해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변인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과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함께 알아보았다. 특히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김은영, 2002; 손은령, 2001; 손은령, 김계현, 2002; 유성경 등, 2006; Betz, 2005; Luzzo & Jenkins, 1996)은 모두 횡단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종단자료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두 가지 연구문제인 두 변인의 안정성과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두 변인 모두 종단적 관련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들에게 있어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두 변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1-2년을 단위로 하여 흥미, 능력, 가치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대안을 선택하고 타협해나가는 시기이므로 진로 포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제언한 것(Ginzberg, Ginsberg, Axelrad & Herma, 1951; Gottfredson, 1981)과는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생들의 경우 청소년 시기동안 진로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청소년시기를 지나면서 진로에 관한 결정을 변경할 만한 계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7개의 진로장벽 하위요인 가운데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을 가장 큰 장벽으로 지각하고 있

있다. 국내 학업 우수 여학생들이 현실성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진로상담의 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으로 작용하는 자기 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진로장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다양한 우수여성의 성공사례를 제공하고 이들과의 멘토-멘티 관계를 맺도록 하여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는다면, 끊임없이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로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들에게 있어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살펴 본 결과 진로장벽 1이 진로포부 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포부 2가 진로방벽 3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횡단연구들이 모두 진로장벽이 진로포부를 제한한다(김은영, 2002; 손은령, 2001; 손은령, 손진희, 2005;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Betz, 2005; Luzzo & Jenkins, 1996)는 인과관계를 보고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포부 또한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의 인과관계는 지지되지 않았으며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포부가 진로장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간에 따른 상호관련성이 밝혀졌다. 학업 우수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어 진로선택의 과정은 단순히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면 진로포부가 제한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으며 진로선택의 과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복잡하게 상호관련성을 주고받으며 발달해 나간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우수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수 남학생들과 달리 청소년기가 되면 아동기에 높게 유지되던 진로포부수준이 낮아지며(유정이 등, 2002), 사회적 지위 수준이 비교적 낮은 전통적인 여성의 직업분야에서만 높은 포부수준을 보이고(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 전통적으로 남성위중의 직업분야였던 과학기술 분야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관련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선미, 김남희, 2006). 이러한 결과들은 우수 여학생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지지와 격려가 부족한 남성 본위의 진로분야(유순화, 2000; Hackett & Betz, 1981)에 진출하기를 꺼리게 되며 높게 지각한 진로장벽에 의해 자신의 진로포부수준을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두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성을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우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일반 여학생들에 비해 발달초기에는 여성에게는 비전통적인 남성 본위의 진로분야에 대한 포부를 가질 가능성이 크지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직업 진출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진로포부를 낮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 경우에 최초로 가지고 있던 진로포부를 낮추게 될 뿐만 아니라, 진로포부를 낮추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포부와 지각한 진로장벽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실제 이상으로 진로장벽을 높

게 지각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상담의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적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우수한 여성들이 자신의 성취와 흥미가 사회적 기대와 충돌한다고 지각하게 되는 경우 진로포부를 낮추거나 실제 이상으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수 여자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대한 중단연구였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존의 횡단연구를 기초로 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진로장벽이 진로포부를 제한한다는 일방향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재검토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상호관련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냄으로써 상담적 개입에 있어 보다 다양한 방향성과 시간적 의미를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수 여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단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우수한 여자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수 남자청소년, 일반 여자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 집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모형을 비교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수 여자청소년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진로 발달상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급 간의 다집단 분석에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추후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학교급 간의 비교 연구를 실시하면 두 시기의 발달적인 차이점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본 논문의 한계는 진로 포부 측정과 관련된다. 본 논문에서는 진로 포부를 설문지를 통하여 본인이 ‘가지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이를 지위 값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부족한 정보를 토대로 직업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들이 선택한 직업의 지위 값이 진로 포부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기존의 진로포부 측정에서 개인 내적인 요인만을 반영한 척도(O'Brien, 1992)와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포부 척도는 사회 맥락적인 요인을 고려하였지만 두 요인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진로 포부를 측정하는 다양한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진로 포부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진로장벽과 진로 포부 간의 일방향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관찰된 회귀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나 값의 크기가 크지 않아 변인들 간의 순차적인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장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측정 시점의 간격을 다양하게 하면서 두 변인 간의 시간에 따른 순차적인 상호관련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둘 간의 관계가 상호관련성을 보이는지, 순차적인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김은영 (2002).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219-231.
- 노동부 (2000).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서울: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노동부 (2005). 한국노동부통계자료, Job map.
- 매경이코노미 (2007,11,21). 고용시장, 비정규직 편견 줄어든다. 1431호.
- 손은령 (2001). 진로 장벽 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 *학생생활연구*, 28, 81-97.
- 손은령 (2002).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지*, 2, 1-14.
- 손은령, 김계현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사회적 인지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신선미, 김남희 (2006).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분야 여성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방안. 2006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인력개발원.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1.
- 유순화 (2000). 성별, 사회적 격려, 자기효능감이 미국 고등학생의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 139-148.
- 유정미, 김지현, 황매향 (2002) 초등학생 직업 포부 및 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5(2), 23-39.
-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의 진로장벽, 학업 효능감 및 진로 포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부산교육학 연구*, 13(2), 101-123.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 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황매향, 김지현, 유정미 (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2), 3-12.
-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상담학 연구*, 6(4), 1205-1223.
- Achter, J. A., & Lubinski, D. (2005). Blending promise with passion: Best practices for counseling intellectually talented youth.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600-624). NJ: Wiley.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and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tz, N. E. (1994). Basic issues and concepts in

-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 (pp.1-41). Hillsdale, NJ: Erlbaum.
- Betz, N. E. (2005). Enhancing research productivity in counseling psychology: reactions to three perspectives. *Counseling psychologist*, 33(3), 358-366.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Ceci, Stephen J., Williams, Wendy M., & Barnett, Susan M. (2009).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Science: Sociocultu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Citation Only Available. *Psychological Bulletin*, 135(2), 218-261.
- Curran, P. J. (2000). A latent curve framework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adolescent substance use. In J. S. Rose, L. Chassin, C. C. Presson, & S. J. Sherman (Eds.). *Multivariate applications in substance use research: New methods for new questions*. Mahwah, NJ: Erlbaum.
- Curran, P. J., & Bollen, K. A. (2001). The Best of Both Worlds: Combining autoregressive and latent curve models. In L. M. Collins & A. G. Sayer (Eds.), *New Methods for the Analysis of Change*. (pp.105-13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urran, P. J., Stice, E., & Chassin, L. (1997).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 alcohol use and peer alcohol use: A longitudinal random coefficients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5(1), 130-140.
-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 (1995). Theoretical issues in the vocational psychology of women. In B. Walsh & S.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2nd ed.*, (pp.67-10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redrikson, R. H., & Rothrey, J. W. (1972). *Recognizing and assisting multipotential use*. Columbus, OH: Charles Merrill.
- Ginzberg, E., Ginsbe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6), 545-579.
- Hackett, G., & Betz, N.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olland, J. L. (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s, NJ: Prectice-Hall.
- Hu, L. -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aufmann, F. (1983). The 1964-68 Presidential Scholars: A followup study. *Exceptional Children*, 48, 164-169.
- Kerr, B. A. (1985). *Smart girls, gifted women*. Columbus, OH: Ohio psychology.
- Kerr, B. A. (1991). *Handbook for counseling gifted and talente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Luzzo, D.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319-322.
- Luzzo, D. A., Hutcheson, & Garrison, K. (1996). Causal attributions and sex differences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occupational barri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2), 124-131.
- Luzzo, D. A. & Jenkins, S. A. (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1), 1-8.
- McEwin, C. K. & Cross, A. H. (1982). A comparative study of perceived victimization, perceived anonymity, self-esteem, and preferred teacher characteristics of gifted and talented and non-labeled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 247-254.
- Mitchell, J. J. (1979). *Adolescent psychology*. Toronto: Holt, Rinehart & Winston of Canada.
- Nelson, M. (1980). The gifted student in the middle school. In Singleton, H. W. (Eds.), *Educational comment: Gifted / talented education*. Toledo: University of Toledo.
- O'Brien, K. M. (1992). *Career Aspiration Scale*. (Available from K. M. O'Brien, Psychology Department,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20742)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O'Leary, V. E. (1974).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s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81*, 809-826.
- Phillips, S. D., & Imhoff, A. R. (1997). Women and career development: a decade of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8*. 31-59.
- Terman, L. M. (1925).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In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1*.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erman, L. M., & Oden, M. H. (1935). The promise of youth. In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3*.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erman, L. M., & Oden, M. H. (1947). Then gifted child grows up. In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4*.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hornburg, H. D. (1980). Early adolescent: Their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High School Journal, 63*, 215-221.
- Trice, A. D. (1991). Stability of children's career aspir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2*, 137-139.
- Trice, A. D., & King, R. (1991). Stability of kindergarten children's career aspirations. *Psychological Reports, 68*, 1378.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Statistics (2007). *Women in the labor force: A databook*. from <http://www.bls.gov/cps/wlf-intro-2007.pdf>
- 1 차원고접수 : 2009. 8. 06.
심사통과접수 : 2009. 8. 28.
최종원고접수 : 2009. 9. 28.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ciprocal Effects of the Perceived Career Barrier and the Career Aspiration of Academically Excellent Female Students

Yang-Hee Kim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Our goal in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possible reciprocal effects that may exist betwee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 and the career aspiration of the academically excellent female students in Korea. We used time-structured longitudinal data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ve reciprocal influences that may exist between these two variables within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framework. Longitudinal data were collected from junior-high 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over 3 years. In the first year of this study, four hundred and thirty fiv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378 students in the second year, and finally 355 students in the third year. We used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panel design with three waves of data. Result of the stability coefficient, reflecting the auto-regressions of each variable showed that the perceived career barrier and the career aspiration of academically excellent fe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stable. In addition, the positive cross-lagged effects of the career barrier and the career aspiration were found between career barrier (T1) → career aspiration (T2), and career aspiration (T2) → career barrier (T3). The findings of cross-lagged effects indicated the reciprocal effects between two variables in stead of the unidirectional effect of career barrier to career aspiration. Suggestion for differentiated interventions for academically excellent female adolescent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made.

Key words : Excellent female adolescents, career barriers, career aspiration, longitudinal analysis

부 록

〈부록 1〉 직업목록과 지위 값

직업명	지위 값	직업명	지위 값	직업명	지위 값
1 시사프로그램PD	42	28 상담가	129	55 자동차 영업사원	102
2 캐릭터디자이너	179	29 물리학자	13	56 문학평론가	75
3 음악평론가	75	30 초등학교 교사	51	57 뉴스앵커	43
4 의학자	2	31 과수 재배자	285	58 낙농업자	290
5 화학자	13	32 해외특파원	43	59 약학자	27
6 통신판매원	241	33 은행지점장	33	60 수필가	75
7 우체국직원	193	34 경호원	201	61 도서관 사서	123
8 시인	75	35 대표이사	10	62 회계사	9
9 은행원	60	36 전기기사	171	63 부모	253
10 사회복지사	128	37 합창단 지휘자	45	64 고위공무원	1
11 소방관	111	38 경리사무원	238	65 유전공학자	23
12 일러스트레이터	179	39 방송기자	43	66 유치원 교사	205
13 특용작물재배자	300	40 응급구조원	124	67 경찰관	101
14 간병인	287	41 화초 재배자	264	68 형사	101
15 성악가	45	42 시나리오 작가	75	69 교수 및 연구원	6
16 호텔경영자	24	43 학원강사	149	70 연예인	131
17 속기사	-	44 소설가	75	71 패션디자이너	94
18 선박기관사	103	45 판매원	184	72 요리사	259
19 화가	106	46 자동차 정비사	167	73 자영업	116
20 축산업자	247	47 컴퓨터 조립원	202	74 인테리어 디자이너	92
21 비서	157	48 호스피스	-	75 스텐더디스	47
22 지질학자	13	49 중·고등학교 교사	37	76 군인	101
23 회사경영자	10	50 진로상담 교사	37	77 운동선수	59
24 전자제품수리원	209	51 작곡가	45	78 프로그래머	54
25 보험설계사	161	52 오케스트라 단원	45	79 회사원	110
26 전담작물 및 채소재배자	300	53 생물학자	13		
27 외판사원	256	54 홍보담당자	53		

주: 지위 값은 노동부 직업지도의 학력수준과 임금수준을 합산한 값 임. 연구에서는 역채점 한 값이 사용되었음. 속기사와 호스피스 직업은 노동부 직업지도에 포함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응답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위 값을 정하지 않음.

〈부록 2〉 지각된 진로장벽 하위요인과 진로포부 간 상관

변인	CB1	CB2	CB3	CB4	CB5	CB6	CB7	CA
1차년								
CB1: 자기이해의 부족	1	.56**	.29**	.40**	.47**	.55**	.33**	-.09
CB2: 자신감 부족		1	.44**	.49**	.60**	.42**	.49**	-.14**
CB3: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1	.51**	.50**	.34**	.44**	-.16**
CB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	.51**	.37**	.46**	-.19**
CB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1	.42**	.49**	-.15**
CB6: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1	.30**	-.02
CB7: 경제적 어려움							1	-.13**
CA: 지위 값								1
2차년								
CB1: 자기이해의 부족	1	.46**	.27**	.44**	.54**	.60**	.27**	-.21**
CB2: 자신감 부족		1	.44**	.49**	.50**	.44**	.42**	-.26**
CB3: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1	.58**	.48**	.35**	.47**	-.20**
CB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	.54**	.48**	.52**	-.22**
CB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1	.46**	.45**	-.16**
CB6: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1	.36**	-.15**
CB7: 경제적 어려움							1	-.21**
CA: 지위 값								1
3차년								
CB1: 자기이해의 부족	1	.60**	.44**	.54**	.59**	.64**	.34**	-.12*
CB2: 자신감 부족		1	.49**	.49**	.62**	.51**	.53**	-.20**
CB3: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1	.54**	.48**	.41**	.44**	-.08
CB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	.55**	.39**	.40**	-.06
CB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1	.50**	.42**	-.09
CB6: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1	.30**	-.10
CB7: 경제적 어려움							1	-.05
CA: 지위 값								1

* p < .05, ** p < .01